

특/별/대/담

중동 및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와 한반도 시사점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이란 전쟁의 발발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대담은 KDI 조동호 초빙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대담자의 동의를 얻어 주요 내용을 정리·수록한다. 대담 이후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추가적인 대담을 진행하였다.



일시 및 장소

2026년 4월 14일(화), 17~19시, 국립외교원 세미나실

사회

조동호(KDI 초빙연구위원)

대담

인남식(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 연구부장)

※ 녹취록 정리: 전정길(KDI 연구원)



조동호: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교수님께서 영국 더럼(Durham) 대학 중동이슬람연구센터에서 중동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국립외교원에서 중동의 분쟁과 테러, 그리고 그 이면의 국제정치를 20년 이상 연구해 오신 우리 학계의 독보적인 중동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란 전쟁의 진행 과정과 전망에 대한 말씀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에 미칠 시사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KDI 북한경제리뷰』의 독자 대부분이 중동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학에는 매우 많은 분야가 있고, 지역으로 볼 때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내의 정치학자들 중에도 중동 정치를 전공하신 분이 아주 드문데, 중동 정치를 전공으로 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중동 정치를 선택한 소회에 대해서도 간략히 여쭙고 싶습니다.

인남식: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후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국제정치 이론보다는 지역학, 비교정치를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서사가 연관된 중동 지역에 호기심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중동 정치를 전공 분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은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이란 핵 문제만 하더라도 2002년부터 24~25년 된 해묵은 쟁점인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급기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국립외교원에 재직할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전쟁과 분쟁, 내전과 테러, 그리고 난민의 행렬을 쉬지 않고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세상이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감이 들 때가 많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비관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40년 묵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증오와
세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폭발한 전면전입니다.”**

조동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답답한 마음과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 전쟁의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독자들이 이번 전쟁의 맥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이나 미국-이란의 관계를 짚어 주시겠습니까?



인남식: 모든 전쟁에 있어서 ‘성격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영토나 국가의 위신, 혹은 정체성을 두고 싸우기 마련인데 이번 전쟁은 매우 독특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라는 세 행위자들이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또한 하나의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쟁점들이 전면전의 형태로 터져 나왔기에 읽기도 풀기도 어려운 추상적 구도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뿌리는 1979년 호메이니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장 미국과 가까웠던 이란이 하루아침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변했고, 혁명 세력이 미 대사관에 난입해 52명의 인질을 444일 동안 억류했습니다. 구출을 위해 투입된 델타포스마저 이란 고원의 모래바람 속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으며 미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4년 뒤인 1983년 베이루트에서는 미 해병대 241명이 시아파 무장 정파의 자살폭탄 테러로 한꺼번에 전사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어떤 보복도 하지 않고 철수했죠. 지금 그런 일이 벌이는 국가가 있다면 아마 초토화될 겁니다.

이후 이란은 미국인들에게 소련이나 나치 독일보다도 더 자국을 도발하고 괴롭힌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 있지 않았던 1980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초지일관 이란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서적 응어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전쟁의 본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습니다.

조동호: 미국 내 이란에 대한 대중적 적대감이 그토록 깊었다면, 트럼프 이전의 역대 행정부들은 왜 군사적 행동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인남식: 역대 대통령들 나름의 군사적 조치가 있었으나 전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전면전은 피했습니다. 대신 이란보다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타격했죠. 당시 네오콘(neo-conservative)들은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이란의 주변국을 민주화하면 1979년 이전의 자유를 기억하는 이란 국민들에게 혁명이 전파되는 이른바 혁명의 ‘월경(spill-over)’ 효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적 선택지보다는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와 같은 핵 합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즉 이란관 ‘햇볕정책’으로 이란을 국제 사회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결국 40년 넘게 축적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바탕으로 직접적 전면전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인 셈입니다.

조동호: 교수님께서서는 어느 강의에서 이번 전쟁의 성격을 ‘네타냐후의 40년 숙원과 트럼프의 거래가 맞물린 이중적 구조’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독특한 발발 원인에 대해 좀 더 부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남식: 네타냐후 총리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993년과 1995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에 환호하던 1996년에 처음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1995년 11월 라빈(Yitzhak Rabin) 총리가 암살 당한 이후, 평화협정의 주역인 당시 외교부 장관 페레스(Shimon Peres)를 누르고 당선된 그는 집권 초기부터 팔레스타인 독립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배제했습니다. 그의 꿈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더 단단히 다지는 것을 넘어 기회만 된다면 국경 너머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를 용인할 리 없죠. ‘두 국가 해법’이 국제 규범처럼 여겨지던 상황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전략을 상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내 급부상한 ‘그레이터 이스라엘(Greater Israel)’ 서사가 그 실체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기이한 형태인데요, 이는 신명기 등 구약성서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밟았던 모든 땅, 즉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유프라테스강 너머까지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입니다. 네타냐후의 언급을 보면, 더 이상 적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이스라엘을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용인하지 않았던 이 영토 서사를 트럼프가 수용한 것은 트럼프 자신은 비록 종교적 서사 자체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정보와 상황 판단, 그리고

로컬 타격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40년 숙원인 ‘이란 정권 교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욕망과 미국의 정권 교체 의지가 이번 전쟁에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란을 내부로부터 해체하려는 소위 ‘발칸화 전략’이
대안으로 떠오를 우려도 있습니다.”*

조동호: 현재 이스라엘의 내부를 보면, 정치적 위기 상황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은 자신에 대한 지지와 국민의 결집을 이끌어 낼 ‘정치적 선택지’인 셈입니다. 이란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 ‘저항 DNA’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외부 공격이 발생하면 내부 분열이 아니라 단결 강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은 체제 · 종교 · 이념 · 안보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구조적 충돌’인 셈입니다. 전쟁이란 언젠간 끝나기 마련이지만, 이번 전쟁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인남식: 말씀하셨듯이 이번 전쟁은 역사적 서사와 복잡한 의도가 얹혀 있어 쉽게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쟁의 본질에 주목한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약 1,500km라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양측 모두 직접적인 지상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사일 공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란의 공격용 미사일 자산과 이스라엘의 요격 자산이 소진되는 시점이 오면, 어느 쪽도 전쟁을 더 이상 추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미군이 지상군을 준비하고 항모전단을 전개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합니까?

인남식: 현재 바로 그 자산 소진의 지점, 즉 일종의 ‘결절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지상전을 전개하거나 협상을 하는 선택지만 존재합니다. 미국이 지상군과 항모전단을 배치한 것은 실제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버리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속내입니다. 네타냐후에게는 전쟁의 상시적 지속 상태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란의 미사일 공세를 직접 막아낼 수 없다면, 이스라엘은 이란 내 소수민족들의 무장봉기를 부추겨 체제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발카나이제이션(Balkanization)’ 전략을 최적의 옵션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미국

이 이를 용인하면 지금의 전쟁이 더 큰 규모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동호: 이스라엘이 이란의 소수민족을 활용해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면 이란을 포함하여 중동 내 분쟁이 지속될 뿐 아니라 심화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용인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인남식: 이스라엘은 이란 인구 9,200만명 중 페르시아인은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아제리족, 발로치족,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이라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것입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북부 군벌에 의해 도전받았듯, 내부 봉기를 통해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설득할 것입니다. 물론 테헤란의 혁명수비대나 권부가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란의 ‘상시적 분쟁 상태’, 즉 내전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조동호: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가져올 지역적 불안정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남식: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독자적 힘으로 쿠르드족 정도는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이 옵션을 검토했으나 그 파급력을 우려해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지 않아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직접적인 지상전이 어렵다면, 미국 역시 내부 폭동을 유도하는 방식의 게임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식’은 이란의 결집력과 지형지물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동호: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외한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없습니까?

인남식: 이스라엘은 미국의 말을 묘하게 듣지 않는 편입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질책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양국이 매우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우회적인 조언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작년 9월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마스 요원의 은신처라는 명분으로 카타르의 민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카타르는 자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요격도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크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질책하기보다 사과 재촉과 향후 재발 방지 약속 요청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조동호: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이란 문제 해결’이라는 개인적 과제 때문이라고 보아야겠군요.

인남식: 그렇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란 문제는 일종의 남겨진 과제와도 같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쟁의 개전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다수 참모는 전쟁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이 적기라며 트럼프를 설득했고, 트럼프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이 수행하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사실상 외국인인 네타냐후가 끌고 들어간 형국입니다. 참모진의 조직적 반대조차 무력화될 만큼, 네타냐후와 트럼프 두 지도자가 공유하는 ‘이란 정권 교체’라는 목표 의식이 이 지점까지는 합치된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동호: 이란 전쟁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즉각적인 민주화 시위와 함께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것이라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이란이 반격할 가장 강력한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전에 장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남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베네수엘라 공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최고지도자나 권부의 핵심 인사만 제거하면 국가 전체가 동요하며 항복할 것이라는 그림을 염두에 둔 것이죠. 하지만 이란 체제는 베네수엘라와는 등치시킬 수 없는 독특한 저항의 결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제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현재의 장기화 국면을 초래한 일차적 원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을 제거하면 즉시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기에 해협 장악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장악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호르무즈를 안전하게 통제하려면 이란 영해에 있는 7개의 도서에 직접 지상군이 진입하여 근접 교전을 통해 이란군을 몰아내야 합니다. 또한 연안의 함대지 미사일과 연안 공격 자산까지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 해병대가 힘준한 자그로스 산맥 지대에 상륙하여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에, 미군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적 배출구로서의 선거와 지배 엘리트의 ‘전쟁 동지적’ 결속이
이란 체제의 안정성을 역설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동호: 이제 국제 정치 관련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매우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향유했습니다. 히잡이 아니라 미니스커트를 입고 코란 대신 영국 패션잡지 ‘보그’를 보던, 매우 자유로웠던 이란 국민 아닙니까. 이란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신정 체제’를 선호하는 것인지, 혹은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지난번 민주화 시위에 대한 대규모 유혈 진압을 보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인남식: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이란의 민심은 대략 3 대 7의 구도로 분석됩니다. 체제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30%의 지배 연합(노년층, 혁명수비대, 관료, 성직자 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70%는 광범위한 체제 비토(veto)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전 대통령 보궐선거 투표율이 이전 수준인 75~80% 대비 50%를 하회하며 이란 국민들의 체제거부를 시사한 점, 그리고 최고지도자나 보수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파인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점 등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 70%의 반정부층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체제 전복을 원하는 이들부터 좋은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의 단순한 부패 청산과 점진적 개혁 정도만 원하는 이들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어느 목소리가 더 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호: 70%라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할 야당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인남식: 그것이 이란 체제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2009년 부정선거 시위 당시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무사비(Mir Hossein Mousavi Khameneh) 후보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대중의 깃발이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시위를 2~3년마다 벌이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었고, 이란의 저항 세력은 마치 ‘젖은 장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란 특유의 ‘선거’라는 시스템이 묘한 역설을 만들어 낸다고 봅니다. 최고지도자가 미는 후보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개혁·중도파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기대’라는 배출구를 제공합니다. 그것조차 막혀야 응집된 불만이 터져 나올 텐데, ‘거리에서 소리 지르기보다 투표로 선출된 이 사람이 무언가 해주길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며 체제 전복의 폭발력을 감쇄시키는 것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국민이 선택한 개혁파 대통령조차 왜 지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남식: 이란 체제의 한계이자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을 이끄는 50~60대 지배층은 개혁파 대통령 폐제시키안부터 세계적인 스타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치(Seyyed Abbas Araghchi), 그리고 혁명수비대 사령관, 언론에 등장하는 개혁파, 중도파, 강경파, 극보수파,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참호에서 8년을 함께 보낸 소년 자원병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노선은 다를지언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는 ‘동지’들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개혁파를 뽑아도 그가 기존 지배 연합을 깨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인적 결속력에 있습니다.

**“전후 이란이 체제 생존을 위해 ‘정상 국가’의 길을 택한다면
중동 패권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조동호: 이번 전쟁이 종결된 이후, 이란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나뉩니다. 전쟁 복구 과정에서 마주할 경제적 한계가 국제 사회와의 협상

유인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불안한 체제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혁명수비대의 입지가 강화되며 더욱 강경한 노선을 채택할까요?

인남식: 이란이 종전을 맞이한다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른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승리를 자축하며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파탄 지경의 경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복구 자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특히 전쟁 중 소진한 미사일 자산을 다시 보충해야 하는 ‘경직성 군비’ 부담은 국민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월의 시위입니다. 과거와 달리 전통적인 체제 지지층마저 ‘우리도 굶주리는데 왜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등 외부 세력을 돕느냐’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줄 수 있는 자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체제는 거대한 공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내부에서 생존을 위한 제재 해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미 1차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은 20년, 이란은 5년의 농축 동결을 두고 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승전의 결과로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는 명분(Optic)을 챙기며 실리적인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최근 이란이 두바이, 아부다비와 같은 지역을 타격하는 등 주변국을 위협하며 ‘중동의 빌런’ 이미지를 굳히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이 ‘정상 국가’로 복귀하여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인구를 다 합한 것보다 많은 약 9,200만명의 인구 규모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란이 정상 국가화될 경우 중동 전체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남식: 이란의 미래는 핵 문제와 전쟁 해결의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과 극적인 타협을 이뤄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딜(deal)이 오바마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이란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제시한 15개 요구 조건에 ‘미국의 투자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전쟁 이전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상전벽해’의 잠재력을 갖춘 이란의 부상은, 이란을 ‘발카나이즈(Balkanize)’하여 내전 상태로 묶어 두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무리 체제가 온건해져도 이란은 시오니스트들에게 공습당한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10년 내에 중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이란과 부담스러운 적대적 공존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결국 중동의 미래는 이스라엘 중심의 분열된 질서냐, 아니면 정상 국가 이란 중심의 재편된 질서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군요.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으로 보십니까?

인남식: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변화 신호가 확실하다면 굳이 이를 막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변국들의 부담도 상당하기에 다양한 제동 장치들이 작동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급격한 재편보다는 현상 유지(Status Quo)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길을 모색하는 ‘그럭저럭 꾸려 나가기(Muddling through)’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튀르키예의 부상 등 변수가 많아 예측이 조심스럽습니다.

*“전통적 동맹과 NPT 체제가 무력화되는 ‘질서의 해체’ 속에서,
국제 사회는 ‘확실한 핵 보유가 생존’이라는 시그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동호: 현재 이란 전쟁은 국제 정치 질서 전반에도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던 전략적 기조를 뒤로하고 다시 중동 전선에 깊숙이 개입하는 형국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토(NATO) 등 전통적 우방과의 균열이 목격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국제 정세의 거시적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남식: 첫째, 이번 전쟁은 ‘질서의 해체’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 전통적 우방들조차 작심하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듯이, 미국은 안보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던 동맹의 가치까지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 대서양 동맹 구조가 깨졌고, 나토가 예전처럼 기능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동아시아 동맹 관리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 다소 다르게 접근하고 있으나,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가야 한다는 기존의 대원칙이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둘째,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질서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NPT 체제도 이미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가 없는 NPT 가입국인 이란이 핵을 보유한 비가입국인 이스라엘에 초토화되는 상황을 미국이 지원하는 그림은,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매우 기이하고 불공정하게 비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란이 고수해 온 ‘임계 전략(Threshold Strategy)’의 실패입니다. 이란은 핵 능력을 최대한 높이되 실제 무기화 선은 넘지 않는 레버리지 게임을 해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공공연히 핵 개발을 과시했고,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 핵을 보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을 넘지 않은 이란만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비슷한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에 모호한 잠재력보다는 확실한 핵 보유가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조동호: 최근 북한은 북중러 결속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신냉전’ 담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해체된 후 곧 과거와 같은 진영 중심의 신냉전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인남식: 신냉전 체제의 가능성은 그리 높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명확한 진영론을 전제로 세력권이 획정되고 그 경계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현재 북한이 북중러의 결함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의도는 보이지만, 지금의 파편화된 국제 정치 질서가 과거와 같은 견고한 두 진영으로 나뉘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은 ‘참수 작전’을 목격한 후 신중한 기조 속에 몸값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조동호: 이제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란 전쟁의 전개 양상만큼이나 그것이 남북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이 중요합니다. 북한 역시 이번 전쟁을 보며 군사·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인남식: 가장 일차적인 충격은 이란의 최고 권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AI 기반 정보 소스’에 의해 정밀하게 제거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무력 공격 능력이 단순한 경고(Bluffing)를 넘어 실제 ‘참수 작전’으로 발현되는 것을 목격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

역시 언제든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북한이 대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외 메시지를 관리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제동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자 사태 초기와 달리 북한은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지지 논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관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에 대해서는 사탄이나 악마에 비유하는 ‘디모나이즈(Demonize)’ 전략을 쓰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가 설정했던 ‘두 개의 악의 축(이란·북한)’에 비해 트럼프가 전혀 다른 관리 기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평양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호: 이란이 견지해 온 ‘핵 임계 전략(Nuclear Threshold Strategy)’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며, 북한은 오히려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제하는 대신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법합니다.

인남식: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핵탄두의 볼륨을 늘리는 것이 추가적인 외교적 레버리지나 안전을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체제 생존(Regime Survival)’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핵 자체보다는 대외 전략 자산 확보로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확인된 미사일 공방전의 양상을 보며, 북한은 핵 자체보다 이를 운반할 투발 수단에 더욱 주력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것은 역시 SLBM(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입니다. 탐지가 어렵고 보복 타격 능력을 상징하는 잠수함 발사 기술 등이 북한의 장기적인 대외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조동호: 한반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 역량과 동맹 방어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의지의 상징이었던 사드를 재배치함으로 인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자체적인 핵 개발로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한반도 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우려는 무엇입니까?

인남식: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국제 정세가 사실상 ‘3차 대전’의 전조를 방불케 할 만큼 위태롭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선이 동시에 열리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급격히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에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 보고 싶게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합니다.

만약 대만 해협 등에서 강도 높은 봉쇄 훈련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중동과 유럽에 발이 묶인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우리의 작전 계획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현재로선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된 대북 억제력을 넘어, 전 세계적 질서 해체 속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교범 자체가 바뀌어 가는 구조적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조동호: 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남식: 유보적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란 전쟁을 보면서 어차피 동맹의 성격도 변화될 것이고, 북한은 확실히 비핵화 가능성이 낮아졌고, 아무리 재래식 무기의 우선성을 얘기하더라도 결국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안보 불안 요소라면, 핵 개발도 금기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점까지는 스스로 물음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NPT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전작권 전환 역시, 속도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냉각기와 국제 질서의 해체를 지나는 우리는
‘규범 기반 질서’를 세우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동호: 교수님께서 과거 인터뷰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분리되어야 평화가 오고,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하며 통일을 지우고 분리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남식: 제가 그 내용으로 논문을 작성했던 시기와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맥락이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처럼

북한이 통일을 체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면, 무리하게 다가가기보다 서로의 차이가 도발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 거리를 두고 상당 기간 ‘쿨다운(Cool-down)’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두 국가’를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미국이 과거처럼 예측 가능한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되었고, 국제법이 무력화되는 ‘질서의 해체’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 외교가 지켜야 할 근저(根底)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대북정책을 포함하여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남식: 중동 외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현재는 질서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존재했고, 미국의 독트린에 우리가 맞춰서 움직이면 큰 어려움 없이 파도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제일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풀에서 수영해 왔지만, 이제는 거친 바다에서 홀로 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맹국이고, 한미관계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무조건 진영론에만 안주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갖추면 좋겠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지난 80년의 질서 속에서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잃어가며 국제법을 경시할 때, 우리는 결코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 호주, 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규범 기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북한에 대해 비핵화 등 국제 규범 준수를 당당히 요구할 명분이 생깁니다.

조동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치의 최고 전문가로서, 혹은 사회과학 학계의 대선배로서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젊은 후배 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남식: 사회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료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서 인과율로 빼느냐, 아니면 비교의 기법으로 그것을 추상화하고 이원화하는 것일 텐데요. 권위주의 국가 및 정권으로 이루어진 중동과 북한에 대한 연구의 공통된 어려움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쏟아지는 프로파간다 속에서 사실관계를 크로스 체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자칫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이론을 전개하기 쉽지만, 학자는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게 있는 사실인지를 염두에 두며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발랄하고 재치 있는 학자는 못 되더라도 오랫동안 무게 있고 향기가 나는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학자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 역시 곱학아세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코어(Core)를 지키며 내부에서 치열하게 반론하고 논쟁하는 학문적 윤리가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조동호: 감사합니다. 오늘 인남식 교수님과의 대담을 통해 이번 전쟁과 중동 정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주시하며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해체되는 국제 질서와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남식 교수는 최근 발간한 그의 저서 『현대 중동의 이해』 서문에서
중동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이 서구의 잣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중동 내부의 역사적 맥락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고민해 오고 있는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중동과 북한을 바라보는
혹은 바라봐야 하는 시각에는 공통점이 많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국가의 존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중동 연구자와 북한 연구자 간의
보다 폭넓은 교류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